

나주시, 6개 기업과 혁신산단 분양계약

전력기기·자동차 부품 생산 시, 투자 전담 2개반 운영 분양률 38%...유치 박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에너지밸리 중심산단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에너지산업 관련, 여러 우수기업과 혁신산단 분양 계약을 완료했다.

시는 최근 청사 이화실에서 서울·부산·나주 등에 입지한 6개 기업 대표와 2만 7000㎡ 규모의 산단 입주 합동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로써 분양률 38%를 기록한 혁신산단은 글로벌에너지 핵심거점으로 한층 더 다가서게 됐다.

이날 분양 계약 체결을 마친 6개 기업은 ㈜광명전기(서울), 미래텍(경기), 피에스텍(경북), 피엔씨테크(경북), 천일계전(경북), (주)나주



나주시와 6개 기업 대표는 최근 시청에서 혁신산단 입주 합동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수신이다.

특히 전력기기,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 중인 피에스텍은 본사와 서울과 김포에 각각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며, 전력기기 사업에 약 278억원 이상의 수주실적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또 자동차부품사업 또한 부품 모듈화 추세에 대응해 한전 및 혁신산단 관련업체와 협조관계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인규 시장은 체결식서 “지속적인 기업 유치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산단이 우수한 산업현장과 자생력을 갖춘 에너지 수도

핵심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지역에 투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해 해결 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지속된 경제 불황 가운데 투자협약 체결 후 기업 여건 등에 따라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를 대비하고, 투자유치 실현율을 높이기 위해 유치 전담 2개반을 가동, 상반기 투자협약 기업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각종 지원제도, 한전의 제한경쟁 입찰 등을 설명하고 에너지밸리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또 2017년 4월말 현재 혁신산단은 8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59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마쳤으며, 6개 기업이 착공 중에 있고, 12개 기업은 준공을 완료해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문화예술위 '인문 멘토링'

10일까지 운영기관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와 함께 오는 10일까지 '인생나눔교실 자유기획사업'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

인생나눔교실은 정부 3.0 사업에 발맞춰 선배세대(멘토)와 새내기세대(멘티)가 나눔, 소통, 배려 등, 인문 가치와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인문 멘토링 사업'으로서, 해마다 인문 소양을 갖춘 은퇴인력 등으로 구성된 250명의 멘토봉사단이 전국의 군인, 청소년·아동 등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해 왔다.

올해 첫 도입하는 '인생나눔교실 자유기획사업'은 현재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멘토링 참여자의 지역적 범위를 좁혀 기초지자체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멘토링의 분야도 제한을 두지 않고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신청하도록 했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은 진로, 결혼 등 인생의 갈림길이나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등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부터 다문화 이주민 혹은 1인 가구, 농촌지역 독거노인 등의 경우까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멘토, 멘티 대상을 발굴해 자유롭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공모 신청은 오는 10일(수)까지이며, 1차(서류) 심사과 2차(인터뷰) 심사를 거쳐 총 4개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각 5000만원 안팎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위원회 누리집(www.ark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근 나주시가 혁신도시 이주기관을 위해 만든 텃밭에서 주민들이 직접 상추 모종을 심고 있다.

<나주시 제공>

빛가람 공원텃밭, 도시 분위기 살리네

기관·주민 359구획 분양

나주시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주민들의 어울림의 장인 빛가람 공원텃밭을 개장했다.

시는 지난달 22일 제1텃밭(빛가람동 536)에서 텃밭 참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가람 공원텃밭' 개장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장식은 올해 텃밭 위탁 운영주체인 예비사회적기업 '꼬바에스' 임선열 대표의 사회로 상추 모종나눔과 텃밭운영지침 및 방법, 1~4텃밭장소추첨 등이 진행됐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중인 공원텃밭은 올해 4개소 7,696㎡ 면적에 총 359구획이 조성됐다. 이중 150구획은 한전, aT, 농어촌공사 등 이전기관에게 배정하고, 200구획은 시민 개개인에게 분양했다.

강인규 시장은 개장식에서 “공원텃밭이 작물 재배, 수확 기능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정보교환과 어울림의 장이자 소통 창구로 활용될 기대한다”며 “가꾸는 재미, 나눔의 행복을 통해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텃밭 인근 곳곳에 각종 약초와 허브식물을 식재해 새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원예체험이 가능한 '힐링 텃밭'으로 가꾸어 나갈 방침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올해 위치정보 산업 규모 5340억원

인터넷진흥원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백기승)은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시장환경을 파악하고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16년 국내 LBS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016년 국내 LBS 산업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1102개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일반현황 ▲LBS분야 생산 및 매출 ▲서비스 제공 방식 ▲산업 발전 전망 ▲애로사항 및 정부 건의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올해 위치정보시장 매출 규모는 약 5340억원 규모로 지난해 3152억원 대비 약 1.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비중은 ▲관제서비스(23.1%) ▲안전서비스(12.3%) ▲O2O(온라인 결합 사무) 서비스(10.8%) 순이었다. 반면, 매출규모는 ▲O2O서비스(563억원) ▲관제서비스(438억원) ▲IoT서비스(252억원) 순으

로, O2O서비스가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업자들은 향후 1~2년 내 위치정보서비스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및 제공(42.9%), O2O 서비스(14.7%), IoT서비스(13.4%) 등이 활성화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융합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사업자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법적 및 제도적 규제(35.7%)라고 답했다. 그 중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42%),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41.5%), 위치정보보호조치 기준(36.2%)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호성 KISA 개인정보기술단장은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하는 등 국내 위치정보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www.lbs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기승기자 pboxer@kwangju.co.kr

aT, 브라질 박람회 참가...중남미 시장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시장 여인홍)는 남미 수출시장 개척과 한국 식품과 홍보를 위해 오는 5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2017 브라질 슈퍼마켓 박람회'(Feira APAS 2017)에 참가한다.

1984년부터 개최돼 올해 33회째를 맞는 APAS 박람회는 약 700업체가 참여하며 7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남미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브라질과 함께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 각국의 슈퍼마켓과 서비스업에 구매팀이 대거 참여하는 바이어

전문 박람회다.

또 동 박람회는 중남미지역 식품홍보와 신제품 출시를 위한 장으로 명성이 높아 남미지역 식품업체의 참가 선호도가 매우 높은 박람회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음료, 소스, 차류 등을 수출하는 11개 업체가 한국관으로 참가하여 중남미 식품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장 개척을 하고, aT는 식문화 홍보관을 통해 불고기, 잡채 등 전통 한식 메뉴의 시연·시식행사를 진행해 현지 바이어에게 적극적으로 한국식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T, 농산물 수급관리 '국민훈장 석류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시장 여인홍)는 지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도 물가안정유공자 시상식에서 정부 비축사업의 안정적 수행 등 수급조절 및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aT는 농식품 수급·수출·유통분야 등 국내 농업의 도전적 분야에서 전문화된 업무역량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조익준 본부장은 정부 비축사업 수행을 통해 ▲국내 농업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한 농안기금 재원 조성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 추진으로 보관 효율성 제고 ▲선제적이고 신속한 TRQ 도

입관리를 통해 불안정한 양념류 가격안정 ▲관세청과 협업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정부 3.0 행정효율화로 유능한 정부 실현 등을 통해 영예로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게 됐다.

여인홍 aT 시장은 “이번 수상은 주요 농산물 수급관리를 책임지는 공기업을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 공사의 수급안정 노력은 국민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다”며 “aT는 농식품분야 수급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농업 생산과 자급기반을 유지한다는 근본 사명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광록기자 kr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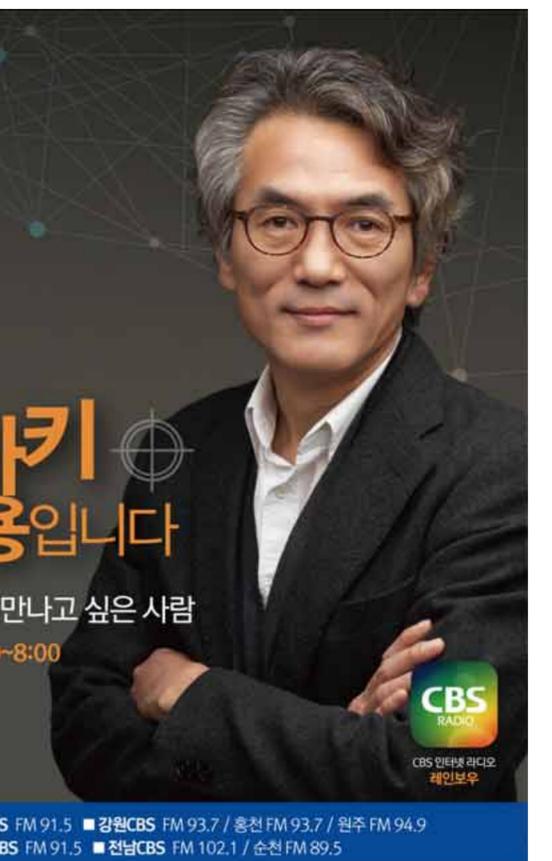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ALL ABOUT NEWS
뉴스쇼

뉴스를 만드는 인터뷰 프로그램
월-금 아침 7:30~9:00



FM 103.1 MHz
CBS 표준 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월-금 저녁 6:30~8:00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 대구CBS FM 103.1 / 안동 FM 92.3 ■ 부산CBS FM 102.9 / 울산 FM 102.1 / 서부산 음악FM 105.3 ■ 광주CBS FM 103.1 ■ 전북CBS FM 103.7 / 남원 FM 90.7 / 고창 FM 96.3 ■ 청주CBS FM 91.5 ■ 강원CBS FM 93.7 / 홍천 FM 93.7 / 원주 FM 94.9
 ■ 대전CBS FM 91.7 / 홍성 FM 99.3 ■ 울산CBS FM 100.3 ■ 포항CBS FM 91.5 ■ 경남CBS FM 106.9 / 진주 FM 94.1 ■ 제주CBS FM 93.3 / 서귀포 FM 90.9 / 여수 FM 90.9 ■ 강원영동CBS FM 91.5 ■ 전남CBS FM 102.1 / 순천 FM 89.5